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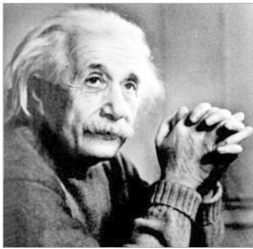


국가별 동향



영국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식단은 계란프라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는 ‘집에서의 아인슈타인(Einstein at Home)’을 인용해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

인슈타인(1879~1955)의 일상을 소개했다. 이 책은 과학자 프리드리히 헤르네크가 1927~1933년 6년간 아인슈타인의 베를린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지냈던 헤르타 발도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쓴 것으로 발도는 아인슈타인이 거의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 또는 스크램블드 에그(휘저어 부친 계란)를 식탁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인슈타인 부부의 검소한 생활도 새롭게 조명됐다. [조선닷컴]



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기절할 뻔 했다’면서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정말 닭 머리가 통째로 나왔다. 눈을 감고 구슬피 우는 것 같다. 슬프고 무섭지 않을 수 없다. 닭 머리 발견자는 관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많은 네티즌들이

격한 공감을 드러냈다. 구토가 날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슬픈 닭의 표정 때문에 감수성을 다쳤다고 말하는 댓글도 보인다. 한편 문제의 닭 머리를 내놓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퀵’은 재빨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1회성 문제이며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건강에는 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팝뉴스]



프랑스

닭날개 대신 닭머리 튀김 나와 ‘경악’

닭 날개 대신 닭 머리를 튀겨 내놓아 손님이 기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몽펠리에 생-장-드-베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지역 패



미국

신선한 계란, 믿을 수 없다? “암탉을 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낳은 신선한 계란이라는 마트의 광고, 믿을 수 있습니까? “고객 여러분, 저희는 아예 암탉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업체가 미국에서

성황이라고 한다. ‘닭을 빌려드립니다’ 신선한 계란을 원하는 주부들에게 암탉을 임대해 준다는 농장의 광고이다. 4백 달러, 우리 돈 50만원 정도를 내면 넉 달 동안 암탉 2마리와 사료를 공급해주고 직접 닭장도 설치해 준다. 고급계란보다도 3배 가량 비싼 셈이지만 한 달에 50여 개의 닭장을 임대할 만큼 성황이다. 한 닭 임대 농장주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고객들이 매우 흥미로워한다”고 했다. [MBC뉴스]

“치맥 열풍이 미국에도?” 경기 중 치킨과 맥주 먹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치맥’이 화제다. ‘치킨과 맥주’를 뜻하는 치맥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즐기는 음식 문화였지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첫눈 오는 날에는 ‘치맥’ 인데...”라며 언급한 이후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에 월미도에서는 중국 관광객 4,500여 명에게 치킨 3,000마리와 캔맥주 4,500캔을 대접한 ‘치맥 파티’까지 열면서 장관을 연출해 더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제 한국을 넘어 한류 열풍의 대열에 합류한 치맥. 이 치맥은 아시아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경기 중에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을 빚었던 일화도 있었다. MLB닷컴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 존 레스터가 경기 중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치킨과 맥주를 먹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존 레스터와 조쉬 벤키트, 존 래키 등의 선수들이 경기 중에 클럽하우스로 나가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고 보도해 논란

이 일었던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중앙일보]



일본

닭 게놈편집으로 계란 알레르기 억제

생물의 유전정보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게놈편집을 이용해 계란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연구가 성공했다. 만약 백신제조용 계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부작용 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연구팀은 게놈편집을 닭에 이용해 계란 알레르기물질의 유전자를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영국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인터넷판에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게놈편집은 유전자의 목적인 부분만을 절단하는 신기술. 세포 속에서 효소 등을 작용시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같은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품종을 개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팀이 게놈편집 대상으로 한 것은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닭의 계란흰자에 포함돼 있는 단백질인 ‘오보뮤코이드’를 만드는 유전자. 정자 및 난자의 토대가 되는 세포에서 효소 등을 작용시키고 이 세포를 배아에 이식해 부화시킨 결과, 여기에서 태어난 수컷 닭은 정자의 일부에서 단백질 유전자가 작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컷을 정상 암컷과 교배시키고 태어난 닭끼리 교배시키자, 단백질 유전자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연구팀은 우선 이번 연구성과를 의약품이나 시약 제조용 계란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 양계